



# 외계인이다!

<Alien!>

### [ 기획의도 ]

혼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던 어린 아이들은 동생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국엔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지만, 어린만큼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 아이들의 어린 치기를, 동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느껴봤을법한 이 감정을 동생을 외계인으로 생각해 쫓아내려는 현우의 이야기로 표현하고 싶었다.

### [ 로그라인 ]

8년동안 외동으로 살아왔던 '현우'는 태어난 동생을 못마땅해 하던 찰나, 동생의 초음파 사진을 발견하고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엄마 수영과 동생을 떼어놓을 계획을 세운다.

### [ 시놉시스 ]

8년동안 외동으로 살아왔던 '현우'는 갓 태어난 동생 현지로 인해 엄마 민정과 아빠 권열이 자신에게 관심을 덜 주자 동생을 못마땅해 한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봐도 달라지는건 없다. 그러던 어느날, 현우는 현지의 초음파 사진을 발견한다. 현지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한 현우는 가장 친한 친구인 수민, 보이스카우트에서 제일 똑똑한 범식과 함께 민정에게서 현지를 떼어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민정 몰래 현지에게 추궁을 하거나, 우주와 교신하는척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지만 현지는 반응하지 않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외계인의 초록피를 확인하려 현지에게 칼을 들이대다 민정에게 들키게 된다. 아빠 권열이 우리 가족 모두 외계인이라고 한 말을 듣고, 가족과 다함께라는 생각에 현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 [ 인물소개 ]

- 이현우(8)      갓 태어난 동생이 엄마를 뺏어갔다고 생각해 쫓아내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 동생의 초음파 사진을 발견하고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며 정체를 밝히려고 한다.
- 강수민(8)      현우의 가장 친한 친구.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며 현우의 작전을 지지한다.
- 김범식(8)      자칭 천재. 항상 똑똑한 면모를 보여주며 현우의 외계인 밝히기 작전을 도와준다.
- 서민정(39)      현우, 현지의 엄마. 갓 태어난 현지를 챙기느라 현우를 챙기지 못한것을 깨닫는다.
- 이권열(39)      현우, 현지의 아빠. 무심한 듯 하지만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 이현지(1)      수영의 딸이자, 현우의 동생. 갓 태어난 아기.

## S#1 / 현우의 집 / 낮

우주와 관련된 포스터, 장식, 장난감이 가득한 현우의 방.  
햇살은 따스하게 현우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시끄럽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방에서 깨어난 현우.  
머리카락은 까치집이 지어져 있다.  
가만히 멍때리며 창 밖을 주시하는 현우.

책상 위 시계가 곧 12시를 바라보고 있는것을 보고, 황급하게 거실로 나간다.

현우                   (문을 열며) 엄마! 나 오늘 수민이랑 산 탐험 간다고 했잖아!

거실로 나간 현우는 다급하게 분유를 만들고 있는 민정을 바라본다.  
거실에 널부러져있는 아기용품들과, 흔들리고있는 우주 장식 모빌.  
거실 소파에는 권열이 뉴스를 보며 대자로 누워있다.  
거실 바닥에 누워 귀가 찢어질 듯 울고있는 현지를 뻘뻘 바라보는 현우.

현우                   엄마...

민정                   (급하게 분유를 들고 현지에게 향하며) 현우, 아직 안나갔네?  
(현지를 안아들며) 빨리 준비하고 놀러갔다 와!

불만이 많은 표정의 현우. 화장실로 들어가고, 민정은 현지를 달래기에 급급하다.  
현지에게만 관심을 주는 민정이 못마땅한 현우.  
현우는 혼자 씻은 뒤 화장실에서 나온다.  
그런 현우의 머리를 거칠게 쓰담는 권열.

권열                   시키, 다켰네.

현우                   (뻘뻘한 표정으로) 아닌데...

툭툭대며 방으로 들어가는 현우.  
방에서 나온 현우는 뱃지가 가득한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고있다.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가방을 동여매고 주방에서 자신의 물통을 꺼내 물을 따르는 현우.  
여전히 까치집인 현우의 머리.

민정                   현우! (부엌으로 쩍싸게 뛰어간다)

민정을 따라가는 현우. 민정은 부엌에서 급하게 지갑을 찾아 천원짜리 세장을 현우에게 내민다.

민정                   수민이랑 맛있는거 사먹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응?

현우                   알았어... (뻘뻘한 표정으로)

현우는 꼬깃꼬깃한 천원 세장을 들고 신발을 신는다.  
민정은 아직도 현지를 챙기느라 바쁘다.  
광 닫히는 현관문, 현관문 위에 붙어있는 현우의 외계인 그림.  
(Title in) <외계인이다!>

## S#2 / 산 / 낮

산 속, 성큼성큼 걸어올라가는 현우와 수민.  
수민도 뱃지가 가득 달린 걸스카우트 옷을 입고있다.  
적당히 평평한 곳에서 멈춘 현우는 가방에서 작은 돛자리를 꺼내 펼친다.  
현우와 수민은 나란히 앉고, 수민은 작은 도마를 꺼내 풀을 돌로 빵기 시작한다.  
고민에 빠져있는 현우.

현우	수민아. 엄마가 나를 안놀아줘.
수민	(나뭇잎을 빵다 말고) 왜? 또?
현우	동생이 맨날 울어.
수민	너가 쫓아내면 되는거 아니야?
현우	그래?
수민	(벌떡 일어나며) 우리 빨리 UFO 찾으러 가자!
현우	알겠어...

현우는 일어나 돛자리를 접는다. 수민은 신난 듯 짐을 정리하고 다시 산을 오른다.  
수민을 따라 걸어가는 현우.

수민	(뒤를 돌아보며) 힘들어?
현우	(멈춰서서) 힘들지는 않은데...
수민	(아까 빵았던 풀을 내밀며) 약 먹을래?
현우	괜찮아.
수민	그래!

다시 뒤돌아 산을 올라가는 수민.  
현우는 묵묵하게 수민을 따라간다.

### S#3 / 산 속 벤치 / 낮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는 현우와 수민.  
그런 둘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  
수민은 나뭇잎을 가지고 놀고있다.

수민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현우            왜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  
수민            (고민하며) ... .. 그냥 쫓아내면 되는거 아니야?  
현우            어떻게?

다시 나뭇잎을 만지작거리는 수민.  
현우는 한숨을 푹 내쉬며 바닥을 바라본다.

수민            저기, 보이스카우트 태양반에  
                  ... 천재가 있대.  
현우            (고개를 획 돌려 수민을 바라보며) 천재?  
수민            물어보는거 다~ 대답해준대.  
현우            진짜?  
수민            햇빛아파트 놀이터에 맨날 있대.

수민의 말을 진지하게 듣던 현우는 잠시 고민하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다.  
나뭇잎을 갖고 놀다 말고 현우를 뺏히 바라보는 수민.

수민            어디가?  
현우            천재 찾으러.

뛰어가는 현우, 급하게 짐을 정리하는 수민.  
수민은 현우를 따라 뛰어간다.

수민            같이 가!

## S#4 / 아파트 놀이터 / 낮

현우는 수민과 함께 달려 놀이터에 도착한다.

저 멀리 스프링 흔들말을 타고있는 범식과, 범식 주변에 모인 아이들.

범식은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고있다.

현우의 뒤, 멀리에서 헉헉대며 뛰어오는 수민.

수민                   (헉헉대며) 같이 가자고 했잖아!

현우는 범식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범식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다.

범식                   축구를 잘하려면, 맨날맨날 발목돌리기를 하면 돼!  
발목돌리기를 하면, 발이 썩지고 ...

현우                   (학생들 사이로 끼어들며) 동생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돼?

범식과 범식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현우를 쳐다본다.

정적이 흐르고, 그 사이로 슬쩍 끼어드는 수민.

범식                   동생을 왜 쫓아내?

현우                   개가 엄마를 뺏어가.

잠시 고민에 빠지는 범식.

범식에게로 집중되는 아이들의 시선.

범식                   ...개 못생겼어?

현우                   ... 응. 주글주글하고, 못생겼어.

범식                   뭐?

급하게 가방에서 외계인 도감을 꺼내 펼쳐드는 범식.

책장을 좌라락 넘기고, 한 페이지에서 멈춰 진지하게 한참 바라본다.

범식                   (고개를 들며) 외계인 아니야?

현우                   외계인?

범식                   외계인은 얼굴이 주글주글해!

수민                   (확 끼어들며) 외계인?!

범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한다.

범식                   너 엄마가 외계인한테 당할수도 있어!

현우           그럼 어떡해?  
범식           빨리 엄마한테 일러야지!

눈을 굴리던 현우는 놀이터 밖으로 뛰어간다.  
뛰다 멈췄던 현우.

현우           엄마가 믿을까?  
범식           증거를 찾아야지!  
현우           (혼잣말로) 증거...

현우는 다시 뒤돌아 집을 향해 뛰어간다.  
그런 현우를 멀뚱멀뚱 바라보는 아이들.

## S#5 / 현우의 집 / 오후

헉헉대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현우.  
현우           다녀왔습니다 -

민정과 현지는 함께 거실바닥에서 잠에 들어있다.  
현우는 돌을 뺀히 바라보다 부엌으로 향한다.  
눈치를 보며 동생의 물건들을 뒤지는 현우.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민정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한다.  
가방에선 이상한 영수증들만 잔뜩 나오고, 민정의 방으로 향하는 현우.  
서랍을 뒤지던 현우는 구석에 들어있던 산모수첩을 열고,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줍는다.  
초음파 사진을 멀뚱멀뚱 바라보는 현우.  
'이현지' 이름이 쓰여진 초음파 사진.  
한참을 바라보던 현우는 무언가 깨달은 듯 표정이 심각해진다.

민정           (잠에서 깨며)현우... 왔어?  
현우           (사진을 황급히 뒤로 숨기며) 어! 왔어!  
민정           (몸을 일으키며) 배고파? 밥줄까?  
현우           아니.. 괜찮...

갑자기 자지러질듯 울기 시작하는 현지.  
민정은 급하게 현지를 안아들고, 현우는 방으로 뛰어들어간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곤 현지의 초음파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현우.

## S#6 / 학교, 현우의 교실 / 아침

헉헉거리며 교실에 도착한 현우.

현우는 급하게 가방을 걸고 동생의 초음파 사진을 꺼낸다.

그때, 현우에게 달려오는 수민.

수민	어떻게 됐어?
현우	(초음파 사진을 보며) 개 몇 반이야?
수민	김범식? 음...
현우	빨리이, (수민을 흔들며)
수민	아마, 1반일걸?
현우	그래? 알겠어. 고마워!

교실 밖으로 뛰어가는 현우,

복도 끝으로 뛰어가는 현우의 뒷모습.

## S#7 / 학교, 범식의 교실 / 아침

범식의 교실에 도착한 현우.

아이들에게 둘러쌓여있는 범식에게 달려간다.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초음파 사진을 내미는 현우.

현우	이거봐.
범식	뭐야?
현우	진짜 외계인인가봐.
범식	뭐?

순간 싸해진 범식의 표정.

범식은 사진을 빼앗아 들고 한참 바라본다.

범식	어떡해?
현우	너, 너가 알려줘야지!

그때, 교실을 채우는 수업 종소리.

범식	학교 마치고 운동장에서 만나!
현우	(사진을 다시 들고 뒤돌아 나가며) 알았어!



S#8 / 학교 운동장 / 오후

현우, 수민, 범식은 운동장 한쪽 구석에 앉아 하염없이 스케치북을 바라본다.

현우            어디부터 시작해야돼?  
범식            일단, 동생이 외계인이잖아.  
수민            진짜?  
범식            (한심한 듯 쳐다보며) 그니까, 외계인인걸 들키면...  
                  엄청 놀라면서, 도망가려고 할거야!  
현우            그럼 알아서 도망가는거겠네?!  
범식            그렇지!

현우는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글씨를 써내린다.

현우            첫째째... 외계인... 인거... 들키게... 하기....  
수민            (고개를 갸웃하며) 근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범식            (손가락을 치켜들며) 그러면...! 우주랑 이야기하는 척 하는거야.

의아한 듯 범식을 바라보는 현우.

범식            너도 친구인 줄 알고 말을 걸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들킨거지!  
수민            (눈을 반짝이며) 우와...!  
현우            ...! 너 진짜 천재구나! (스케치북에 글을 써내리며)  
범식            하하. 이정도는 돼야지!  
현우            이게 안되면, 음... 어떡하지?  
범식            ...음... 외계인은, 초록 피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피가 초록색인지 확인하면 돼.  
현우            어떻게?

가방에서 작은 미니 커터칼을 꺼내는 범식.

범식            이거면 안아프지 않을까?  
현우            무서운데...  
범식            따끔하는 정도면 괜찮을거야.  
현우            알았어...  
수민            (범식을 바라보며) 너 진짜 짱이다! 바비 왕자님 같아.

범식은 우쭐해하며 씩 웃는다.

스케치북에 계속 글을 써내려가는 현우.

스케치북에 쓰인 글귀, "외계인이다!"

수민과 범식은 왁자지껄 떠들고, 현우는 결심한 듯 스케치북을 덮는다.

## S#9 / 몽타주 / -

오후, 집에 도착한 현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민정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본다.

현지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이리저리 말을 걸어보는 현우.

현지는 아무 반응도 주지 않고, 실망한 듯 방문을 꽁 닫고 들어가는 현우와 놀라는 민정.

Cut to.

낮, 집 앞 계단에서 상자에 색종이를 붙여 UFO를 만들고있는 현우.

현지 옆으로 가 UFO를 날려보지만, 힘없이 떨어지는 UFO.

현지 곁에 UFO를 두고, 수영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창 밖으로 UFO를 날려버리는 현우.

힘 없이 떨어지는 UFO를 보며 뻔뻔한 표정을 짓는다.

Cut to.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들어와 현지 옆에 털썩 앉는 현우.

가방에서 외계인 머리띠를 꺼내 쓴 후, 민정의 휴대폰을 가져와 전화하는 시늉을 한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손가락으로 가리켜보고,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 반응없는 현지와, 답답한 현우.

외계인 머리띠를 벗어던진 현우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현지에게 내민다.

현우           야. 너 외계인이지?

현지(V.O)   (옹알이)

현우           대답한거야? 맞지? 그치?

다시 아무 반응 없는 현지.

현우는 결심한 듯 가방에서 미니 커터칼을 꺼내 현지의 팔로 서서히 갖다댄다.

현지의 피부에 칼이 닿을 뻔 한 찰나,

민정           (방에서 나오며) 현우, 뭐해?

현우           (수영을 바라보며) 엄마?... ... 애 외계인이야!

민정           (그 자리에 굳어서) 무슨... 뭐? 외계인?

손에 칼은 뭐야? (현우에게 황급히 다가가며) 빨리 엄마 줘.

현우 ... (가만히 멈춰서서) 엄마도 외계인이구나?

뒷걸음질치던 현우는 현관문을 박차고 도망친다.

뛰어나간 현우를 병쳐 바라보는 민정.

## S#10 / 집 앞 놀이터 / 밤

놀이터에는 범식과 수민이 나뭇잎을 뺏으며 놀고있다.

범식 (나뭇잎을 내밀며) 자, 이걸 보세요.  
이것은 모든 병을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수민 혁! 저는 언제 이런걸 만들 수 있나요?  
범식 천재가 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민 어! 현우다!

히킥대며 범식과 수민에게 다가오는 현우.

범식과 수민은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범식 잘 안된거야?  
수민 외계인이 너 때렸어?  
현우 (울먹이며) 아니... 엄마가... 엄마도 외계인인 것 같아!!  
범식 엄마도!?  
수민 어떡해!?  
현우 (히킥대며) 모르겠어...

범식과 수민은 어쩔 줄 몰라한다.

그때, 현우를 부르는 소리와 함께 급하게 뛰어오는 민정.

민정 (놀이터로 뛰어오며) 현우야!

민정을 보자마자 도망가는 현우.

그리고 현우를 등지고 도망가는 범식과 수민.

범식 외계인이다!  
수민 도망가!  
현우 따라오지 마!  
민정 (현우를 따라 뛰어가며) 멈춰봐!

현우는 멈추지 않고 뛰어가고, 민정은 그런 현우를 따라 뛰어간다.

놀이터 그네 앞에 멈춰 헉헉대는 현우.

쫓아오는 민정을 보고, 미끄럼틀을 빙빙 돌며 추격전을 벌인다.

민정 (헉헉대며) 현우야! 좀 멈춰!  
현우 싫어! 엄마도 외계인이지?  
민정 (헉헉대며 천천히 멈춘다)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현우 (조형물에 숨어 머리만 내밀고) 외계인이다!!  
민정 뭐라는거야!! (다시 쫓아가며)

헉헉대며 느려지는 현우를 붙잡는 수영.

현우는 밀어내려 하지만, 수영은 놔주지 않는다.

현우 놔! (몸부림치며)  
민정 나 외계인 아니야.  
현우 거짓말!  
민정 외계인은 사람 말 못해.  
(숨을 내쉬며) 그럼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현우도 외계인이야?  
현우 나 외계인 아냐.  
민정 그치?

잠깐 흐르는 정적, 현우는 가만히 바닥을 응시하고, 수영은 현우를 가만히 바라본다.

민정 현우야. 밤에는 추워. 들어가자.  
현우 ... 이제 나랑도 놀아줄거야?  
민정 응. 같이 놀자.  
현우 ... 진짜?  
민정 도장 찍을게.

현우의 손바닥을 펼쳐 주먹을 쥐어 도장찍는 행동을 하는 수영.

현우 ... 복사는 안 해?  
수영 알겠어. (복사하며)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도 하자.  
현우 ... 알았어.  
수영 ... 가자.

현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왔던 길로 돌아가는 수영.

현우의 표정은 아직도 뽀루통하다.

## S#11 / 현우 집 / 밤

자신의 방 구석에 무릎 꿇고 손을 든 채로 벌서고있는 현우.

입이 뺏겨 나온 현우를 보며 한숨을 쉬는 민정.

민정(V.O)     어떡하지?

권열(V.O)     뭐라대?

소곤거리는 민정과 권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손을 내리는 현우.

민정(V.O)     손 똑바로 들어!

황급하게 다시 손을 올리는 현우, 그런 현우를 바라보며 방에 들어오는 권우.

권열             어이. 이현우. 아빠랑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

현우             ...맛있는거?

현우는 민정의 눈치를 보며 손을 내린다.

조심스레 방 밖으로 나가는 현우.

민정은 그런 현우를 뒤로하고 요리를 하고있다.

현지가 누워있는 아기침대를 응시하다, 권열을 따라 현관문으로 향하는 현우.

## S#12 / 놀이터 / 밤

나란히 그네를 타며 과자를 먹고있는 권열와 현우.

권열은 현우를 가만히 바라본다.

권열             현지가 외계인같아?

현우             응... 근데 아니래.

권열             외계인 아니면 좋은 거 아냐?

현우             그럼... 현지가 엄마랑 아빠 뺏어가잖아.

과자를 입에 가져가다 말고 멈칫하는 권열.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늘을 뺏히 바라본다.

이내 장난끼 가득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며 씩 웃는 권열.

권열             현우야 사실...

현우             응?

권열             우리 가족은 전부... 외계인이야!

현우            응?  
 권열            현우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숨기려고 했는데,  
                   먼저 알아버렸으니까 알려주는거야!  
 현우            진짜? 그럼 나도... 외계인이야?!  
 권열            어. 근데 외계인은 어릴때 약해서,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거야.  
                   현우는 엄청 튼튼하니까!  
 현우            오...!

상기된 표정의 현우. 현우는 생각에 빠진다.

그런 현우를 바라보며 과자를 먹는 권열.

현우            그럼! 우리 다같이 지구에 놀러온거네!  
                   다음에 UFO도 탈 수 있어?!

권열            그치~

그네에서 내려 방방 뛰며 놀이터 구조물로 올라가는 현우.

그런 현우를 보며 재밌다는 듯 웃는 권열.

(Fade Out)

## S#13 / 현우의 집 / 아침

자지러질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현우.

열심히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가자, 현지를 달래는 민정이 보인다.

그 옆에서 아침밥을 먹고있는 권열.

민정            (현지를 달래며) 깻어? 일찍 일어났네. 학교 가야지.  
 현우            (현지에게 다가가서) 현지 계속 울면 외계인 들켜!  
 민정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앵? 뭐?  
 현우            히히.

재빠르게 화장실로 향하는 현우. 씻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곤 가방을 맨다.

현우            (거실 한복판에 서서) 다녀오겠습니다!  
 권열            바이~  
 민정            다녀와~

나가려다 다시 돌아와 현지가 누워있는 모빌 안을 바라보는 현우.  
우주 장식의 모빌을 툭 쳐 흔들리는걸 바라보다, 현지에게 인사를 한다.  
밖으로 뛰어나가는 현우와, 닫히는 현관문. 민정은 흐뭇한 표정으로 현관문쪽을 바라본다.

## S#14 / 학교, 교실 /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현우.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그런 현우에게 달려오는 아이들과 범식, 수민.

아이1            너 동생 외계인이라며?  
아이2            진짜야?!  
범식              어떻게 됐어?  
수민              어떻게 됐어? 응? 응?

현우는 씨익 웃으며 자신의 초음파 사진과 현지의 초음파 사진을 꺼낸다.

현우              나랑 현지랑 둘 다 외계인이야!

표정이 싸해지는 아이들, 그리고 범식과 수민.

범식              외. 외계인?  
수민              외... 외.... 외계인이다!!

도망치는 아이들, 범식과 수민, 그리고 웃으며 둘을 쫓아가는 현우.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범식과 수민을 덮치는 현우.

(Freeze Frame, Fade Out)